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1. 모더니즘 미술의 맹아

현대(modern, die Moderne), 현대성(modernity, modernité), 현대 미술(modern art), 모더니즘(modernism)

“현대(modern)”라는 용어는 5세기에 “바로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 modo에서 파생된 라틴어(modernus)로 처음 등장해, “저자가 경험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이 용어는 16세기에는 전통의 반대 개념으로 현재(present) 또는 근래(recent times)를 지시하게 됨. 이 용어는 17세기에 들어서는 고대(ancient)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고대적인 것들과 현대적인 것 사이의 논쟁”을 야기했고, 이 논쟁이 프랑스에서 17세기에 본격화되어 고대가 현대를 위한 규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남. 위의 논쟁은 19세기 중엽에 고대 세계(고대성antiquité)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현대 세계(현대성modernité)는 시간과 연결된 것으로,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견해로 끝남. 이 때 현대적이란 과거와 전통을 중시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모델이나 규범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과 단절하고 동시대와 함께 가는 것을 의미. 현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현재에 대한 주제는 현대의 것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봄. 1864년 샤를르 보들레르는 현대 세계, 즉 현대성을 “단명 하는 것, 덧없는 것, 지나가는 것”으로 설명.

이러한 의식은 인간의 주체의식의 성장과 연결됨. 따라서 정치, 경제, 철학, 예술 분야마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현대의 시작을 다르게 설정되지만, 정신사적으로는 현대의 시작을 인문주의자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개념을 부활시킨 르네상스 시대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임. 경제사적으로는 18세기 중엽 산업 혁명부터, 정치사적으로는 18세기 말 프랑스대혁명과 19세기 초의 민족주의로부터, 문학사와 미술사에서는 미학적으로는 19세기 초부터, 양식사적으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봄.

즉 철학적, 미학적으로 현대는 1800년 전후,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에, 양식사적으로는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에 시작. 양식사적으로 현대미술은 1860년대부터 포스트모던이 시작되기 전 1970년대까지 미술을 칭함.

1800년 전후에 시작된 미학적, 즉 철학적 의미의 현대 미술은 1800년경 이전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들인 종교와 계몽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대로 태어남. 신의 가르침 대신 이성을 진리(빛)로 제시한 계몽주의는 기독교에 반대했고, 계몽주의의 산물인 프랑스대혁명을 촉발한 바스티유감옥의 습격과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일련의 비계몽적인 사건들을 야기함. 미술가들은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개인의 내면을 보여줌. 이에 따라 미술은 종교적 주제로부터 멀어지고, 종교적 주제라도 현세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주의적으로 되어감. 대표적으로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와 프란시스코 드 고야의 19세기 그림들.

철학적인 의미의 현대미술이 종교와 계몽주의와 관련이 있는 반면 양식사적인 의미의 현대미술은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연결됨. 이 경향의 현대미술은 위의 경향의 미술보다 더 직접적으로 현세적임. 기차와 같은 산업혁명의 산물을 통해 바뀐 시지각 방식은 윌리엄 터너의 그림에서 보여짐.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를 포함한 인상주의자들과 에드가 드가, 톨루즈 로트렉 같은 미술가들은 산업화를 통해 변화된 도시 모습과 도시인들의 삶을 표현. 이들의 그림은 보들레르가 현대성으로 칭한 특징인 덧없고 변하고 순간적인 것을 표현. 순간을 포착하는 카메라의 속성과 사진은 이들이 미술에 영향을 줌.

그러나 형식주의자들은 모더니즘을 미술만이 아니라 건축, 음악, 문학 등에서 이전의 형식을 반대하고 비판한 경향으로 봄. 그들은 특히 모더니즘 회화의 특징을 사실주의에 반대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색, 선과 형태를 조직적으로 배치해 화면의 평면성을 추구한 것으로 봄으로써 표현주의, 입체파, 궁극적으로는 추상을 의미함.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평론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을 각 학제(예를 들어 회화)가 그것의 능력 범위에서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안으로부터 자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정의함. 이것은 회화는 회화만이 가진 특징을 지니기 위해 다른 요소들은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임. 이에 따라 그는 모더니즘 회화는 그가 문학적 요소로 본 내러티브, 조각적 요소로 본 3차원성, 물감 이외의 다른 재료와 같은 '비회화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그가 말하는 회화적 요소는 직사각형, 물감과 그림 표면의 2차원성, 즉 평면성임. 그는 이것을 회화의 자율성이라고 칭함. 그에게 모더니즘은 (매체의) 순수성을 의미하고, 그에게 모더니즘 미술은 추상만을 의미. 그는 1939년 「아방가르드와 키치」라는 글에서는 매체의 순수성을 가지지 않은 미술을 키치(kitch)로 칭함.

이러한 의미에서 형식주의 미술사가들은 모더니즘 회화의 시작을 “낙선자전시회”에 전시된 마네의 <풀밭 위의 아침 식사>(1863)나 <올랭피아>(1863)로 보면서 화가의 새로운 소재, 새로운 회화적 가치와 공간적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강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가가 부르주아 남성들의 숨겨진 생활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바로 지금(modò)”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임. 그의 작품들이 전시장에서 관객을 놀래 킨 이유는 “평면성”보다는 점잖은 부르주아의 세계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구스타브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1849-50)은 진취적인 모더니즘 회화임.